

법화경의 주요 법리

1. 제법실상과 이승작불

법화경의 전반·적문의 중심적인 법리는 ‘제법실상(諸法實相)’과 ‘이승작불(二乘作佛)’입니다.

방편품에 설해진 ‘제법실상’이란 상상하기도 힘든 부처의 깨달음을 굳이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법(諸法)’이란 이 현실 세계에서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입니다. 지옥계부터 불계까지의 모든 생명도, 각각의 생명이 사는 환경 세계도, 나아가 우주의 모든 현상도 모조리 제법에 포함됩니다. ‘실상(實相)’이란 ‘구극의 진리’입니다. 단 이 실상은 어딘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별세계에 있는 것이라든지 구체적인 ‘제법’에서 동떨어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제법실상에 대해서 “지옥에서부터 불계까지의 십계(十界)의 중생과 그 환경 세계(제법)는 모두 妙法蓮華經<실상>의 나타남이다” (어서 1358쪽, 통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계의 어느 생명이라도 또 십계의 중생이 사는 어느 세계라도 그 참된 모습은 妙法蓮華經가 나타난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제법실상입니다. 이 제법실상이 설해짐으로써 일체중생이 평등하게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거의 분명해졌습니다.

이 평등한 성불의 가능성을 명시하기 위해 적문에서는, 법화경 이전의 경전에서 강하게 부정된 ‘이승작불(성문에 대한 수기)’이 가능하다고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이 적문의 가르침은 법화경 이외의 모든 경전과 비교한다면 성불관의 혁명을 초래할, 실로 획기적인 가르침입니다. 다른 경전에는, 지옥계에서 보살계까지의 구계는 어디까지나 미혹의 경애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떨어져야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해져 있는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정도를 올리면서 몇번이고 삶을 반복하여 수행을 거듭해야 한다는 역겁수행(歷劫修行)이 필요하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옥계에서 보살계까지의 구계와 동떨어져 있는, 불계의 경애만을 추구해 가는 제경의 사고 방식은 제법실상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제법실상이 설해짐으로써 십계의 중생은 모두 묘법<실상>의 당체로서 평등하게 불계를 구족하는 것이 되며 그 불계를 열면 성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구원실성

석존이 구원의 옛날에 성불했다는 것을 ‘구원실성(久遠實成)’이라고 하며 이 구원실성의 부처야말로 석존의 본지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석존이 과거세부터 가나긴 수행을 한 결과로 금세에 비로소 성불했다고 하는 ‘시성정각(始成正覺)’의 부처관·석존관은 임시의 모습이라 하여 부정되었습니다. 이전경과 법화경 적문에서는 석존이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나 출가하여 수행한 끝에 부다가이의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으로 부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처관·석존관을 ‘시성정각’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정각(正覺) 부처의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성정각의 부처관에서는, 가나긴 과거부터의 수행 결과로 금세에서 성불한 부처는 이것으로써 완성에 이르렀기에 입멸 후에는 전혀 다른 세계로 사라져 더 이상 현실 세계에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상을 동반합니다. 이 사고방식을 부정하는 것이 수량품의 구원실성입니다.

3. 부처의 보살행

수량품은, 구원실성의 부처가 구원의 옛날에 성불한 이래 사바 세계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토에서 여러 모습의 부처·보살로 나타나 설법하여 중생을 교화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부처가 입멸하여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

편월열반>

결국 모든 장소, 모든 형태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구원실성의 부처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잠시도 이 활동을 멈춘 일이 없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불하여 어딘가 다른 세계로 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불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끝없이 진행해 간다는 것이 수량품의 부처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성정각의 석존을 포함한 다른 경전과 법화경 적문에 설해진 여러 종류의 부처는 모두 구원실성의 부처의 일면을 방편으로써 나타낸 것으로 요컨대 적(迹 그림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수량품이, 시성정각의 석존은 일면의 모습(迹)이고 구원실성의 부처가 석존의 본지라고 밝힌 것을 천태 대사는 ‘발적현본(發迹顯本 적을 열어 본을 나타낸다)’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실성의 법에서 중요한 점은 진실한 부처는 현실 세계(사바 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형태로 활동을 계속하는 부처라는 점입니다.

즉 진실한 불계의 생명은 현실 세계의 모든 국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석존이 살아 있는 때만 부처가 이 세상에 있고 석존이 입멸하면 부처가 사라진다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불계의 생명은 석존이 깨닫고 설해 나타 내려고 한 불계의 생명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재법실상은 일체중생에게 불계의 생명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서 만인 성불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구원실성은 한 걸음 더 전진하여 석존 자신의 영원한 불계의 생명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왔듯이 수량품은, 오백진점첩이라는 구원에 성도했다는 석존의 진실한 불과(佛果: 본과(本果))를 밝혔습니다. 또 부처가 활동하는 국토가 사바 세계라고 하여 부처의 본국토(本國土)를 밝혔으며 또한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개결 500쪽)라고 설하여 성도(成道)하기 위한 근본 원인(本因(本因))으로 보살도의 수행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수량품에는 석존의 본인 본과, 본국토가 나타나 있습니다. 천태대사는 각각의 내용을 본인묘(本因妙), 본과묘(本果妙), 본국토묘(本國土妙)로서 그들을 합하여 나타냈는데 이것을 ‘삼묘합론(三妙合論)’이라고 합니다.

4. 지용의 보살

지용의 보살이란 법화경 중지용출품 제15에서 석존 멸후의 때, 이 경전을 호교해 달라는 석존의 권유에 응하여 대지 밑에서 용출한 수많은 보살을 말합니다.

그 숫자는 육만항하시입니다. ‘항하시란 갠지스 강에 있는 모래알 숫자를 말합니다. 게다가 육만항하시의 보살은 각자 무수한 권속(따르는 사람, 동료)을 인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습도 석존보다 훨씬 훌륭하고 품위 있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또 지용의 보살은 구원실성의 석존이 구원부터 교화해 온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불해서도 오백진점첩이라는 멀고 긴 시간 동안 현실 세계에서 중생 구제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온, 구원실성의 석존을 스승으로 하여 스승과 같은 삶의 자세를 깊이 몸에 익혀 온 사제불이의 제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살처럼 단순히 자신의 성불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용의 보살은 상행(上行), 무변행(無變行), 정행(淨行), 안립행(安立行)이라는 4명의 도사(導師) 중생을 인도하는 스승)가 인솔하고 있습니다(4보살). 4명의 이름에는 모두 ‘행(行)’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제각기 현실 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의 자세를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석존은 여래신력품 제 21에서 상행보살로 대표되는 지용의 보살에게 여래의 모든 법과 신력 그리고 그 실천을 의탁하여 멸후의 흥법을 부촉합니다.

이어서 촉루품 제 22에서는 모든 보살과 제천에게도 멸후의 흥법을 부촉하는데 신력품에서 거행된 지용의 보살에 대한 부촉을 별부촉(別付觸, 촉루품에서 거행된 모든 보살에 대한 부촉을 총부촉(總付觸)이라고 합니다.

이 보축의 모습은 석존 멸후, 특히 악세 말법에 법화경을 흥통하는 주체자는 어디까지나 상행보살을 비롯한 지용의 보살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족대로 말법의 법화경 흥통의 선구자가 바로 니치렌 대성인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제법실상초’에는 “어떻게 하여서라도 이번에 신심을 다하여 법화경 행자로서 일관(一貫)하고 끝까지 니치렌의 일문이 되어 나아가시라. 니치렌과 동의(同意)란다면 지용의 보살이 아니겠느냐. 지용의 보살로 정해진다면 석존의 구원(久遠)의 제자라 함을 어찌 의심하리오” (어서 1360쪽)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신수하여 대성인 정신 그대로 광포의 실천에 힘쓰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지용의 보살인 것입니다.

5. 불경보살

불경보살(不輕菩薩)이란 법화경 상불경보살품 제 20에 설해진 보살로 정확하게는 상불경보살이라고 하며 석존이 과거세에 수행했을 때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불경보살은 위음왕불의 상법시대(象法時代) 말에 출현하여 “나는 깊이 그대들을 존경하며 절대로 경만하지 않노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해서 응당 작불함을 득하리라.” (나는 깊이 당신들을 존경하고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성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결 567쪽)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예배하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법화경의 뜻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며 한문으로 보면 한자로 24문자이기 때문에, ‘24문자의 법화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나타나고 있듯이 사람들을 결코 경시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불경보살이라고 합니다.

예배행을 행한 불경보살은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구매리당하고 장막, 외적으로 구타당하는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불경보살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앞에 했던 말을 반복해서 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경품(不輕品)에 “기죄멸이(其罪畢已 그죄를 이미 마치고)” (개결 573쪽)라고 있듯이 이 실천으로 불경보살은 과거의 죄업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불경보살은 목숨이 끝나려 할 때 위음왕불이 설한 법화경을 허공에서 자세히 듣고 육근청정(六根淸淨)의 공덕을 얻어 이백만억 나유타 세(歲)까지 수명을 연장, 법화경을 계속 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다한 후 다시 무량의 부처와 만나 그곳에서도 사중(四衆: 비구, 비구니, 우바이(재가의 남성신도), 우바이(재가의 여성신도))을 위해 법화경을 설하여 그 공덕으로 성불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불경보살을 박해해 온 사람들은 불경보살에게 신복(信伏)·수종(隨從) 했지만 보살을 박해한 죄로 천겁 동안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끝났을 때 그들은 법화경과 연을 맺은 공덕으로 석존의 법화경 회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 불경보살의 실천은 석존이 성불하게 된 인(因)을 나타냄과 동시에 석존 멸후 법화경이 설하는 보살의 실천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실천 자세로

- 어디까지나 만인 성불을 확신하여 모든 사람을 존경할 것
- 24문자의 법화경처럼 간요의 법을 넓힐 것
- 신념을 관찰하면서 받게 될 박해를 참아 낼 것
- 신념의 투쟁으로 악세에서도 악에 휩쓸리지 않고 숙명을 전환해 갈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대성인은 자신의 투쟁이 불경보살의 실천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